

도·동경한국상공회의소, 경제교류 협력 강화

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등 글로벌시장 진출 위해 긴밀 협력 동경한국상공회의소, 전주상공회의소와도 경제협력 추진 관 주도 경제교류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는 긍정 효과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일본 동경 한국상공회의소는 오는 10월 전북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22차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양 기관 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경 한국상공회의소와 전주상공회의소와의 교류 협력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 주도 시작한 경제교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는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김순차 회장 등 11명의 상공인은 간담회를 갖고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12월 전북자치도가 일본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맺

은 이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공회의소 요청에 따라 전북의 디지털 행정에 대한 현황을 소개했다.

김순차 회장은 간담회에서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일본의 한인 CEO들이 대거 참여해 전북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기업들의 네트워킹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동경 한국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경한국상공회의소는 전북차



지난 6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동경 한국상공회의소 김순차 회장 등 11명의 상공인이 간담회를 가졌다.

차도와의 간담회에 앞서 전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실질적인 경제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펼쳐졌다.

동경 한국상공회의소는 일본 도쿄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제단체로 약 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일 동포 기업 지원과 청년상공회 육성 등을 통해 한일 친선 도모와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개최

도, 사회복지 유공자 70여명에 장관·도지사 표창 등 수여 사회복지 윤리선언 낭독·사회복지 종사자 격려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관 단체장 및 종사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70여명에 대한 포상을 시작으로 기념사, 축하, 사회복지 윤리선언, 퍼포먼스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북의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전북사회복지대상'에는 49년 동안 장애인, 노

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에 앞장서며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에 기여한 하정섭 영암복지재단 이사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정부포상으로는 91년부터 30여 년간 '봉사로 보람을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테두리회가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다.

아동복지시설 재지하며 아동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삼성휴먼빌 유봉래 생활복지사가 개인표창을 받았다.

/이만호 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효율적 인력 중개 위해 '힘 모으자'

전북특별자치도·전북농협, '2024 농촌인력중개센터 워크숍' 성료... 농촌 인력 수급 방안 모색·중개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효율적인 인력 중개를 위해 힘을 합쳤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2024 농촌인력중개센터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인력 중개센터(농촌형 36개소, 공공형 11개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촌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고용인력 정책의 방향, 농업 분야 노무관리 역량 강화 등 7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혁신적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여자들은 각 시군별 농촌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한 현안 문제와 효율적인 인력 중개와 관리를 위한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농촌 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장마 등 기상악화로 인해 휴업인력 발생 시 농산물선별장 등 실내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급증할

때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일 전북농협지역본부장은 "농어업고용인력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북 지역이 '시도형 중개센터'로 지정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시군 농협이 협력해 인력 중개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전북자치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은 특히 농촌인력 중개와 관련된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향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제시된 각종 개선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촌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도, 시군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14개 시군 공직자 대상, 도 비전 공유·특례발굴 역량 강화

전북자치도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한 시군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9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출범한 전북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군산시에서 열린 첫 교육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약 300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전북연구원 민기석 과장과 연구위원이 '시군과 함께하는 전북형 특별자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군산의 해양문화유산과 근대문화유산, 새만금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사례를 공유하며, 전북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설명했다. 특히 특별법의 구조와 전북형 특별자치 접근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뤄 참석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영란 전북자치도 자치제도과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에 반영된 각각의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량교육은 군산시를 시작으로 27일 익산시와 진안군, 30일 부안군 등에서 계속되며, 12월 2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순차적 진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공직자들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이해·공직자 역량강화'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만호 기자

김종훈 경제부지사, 추석 성수품 출하동향 점검

전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현장 관계자 격려 등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5일 전주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 등의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 2주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사과, 배의 경우 작황은 양호하며, 출하량도 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산물의



집하·저장·선별 과정을 점검하며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품질 관리와 물류 체계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와 배는 출하량에 따라 가격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북 생생장터를 통한 농산물 할인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산지 유통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들이 추석 성수품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합 공동 사업법인에 통합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성수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만호 기자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난산업박람회 성공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 의원 윤수봉 의회(의회운영위원장, 완주 1)이 2024 전북특별자치도 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수봉 의원은 지난 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난산업박람회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라북도난산업연합회 등 난산업 관련 단체와 함께 성공적인 운영 방법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보급과 주변 확대 및 원예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농업 작목으로 평가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미래 유망 화훼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수봉 의원은 "난의 잠재적 가치에 주목하고 신품종 개발 및 관련 기간 공동안구, 공동배양장 및 상설판매장 구축 등 난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시도가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난 연구 및 개발, 재배·유통, 전시·교육과 체험 등 복합적인 가치사슬을 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난산업 관련 단체 및 애란인 참여 독려와 홍보, 일반인들의 호응을 위한 분갈이 이벤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내수면 양식업 진입장벽 해소

도, 첨단 연구시설 구축 통한 지속가능 양식산업 육성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활용 대량양식기술 개발 추진 첨단 양식기술 확산 위한 교육·실습 등 지원체계 확립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는 수산 양식업의 데이터 기반 표준화, 디지털화를 접목한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으로 도내 내수면 양식업 진입장벽 해소 및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양식업은 오랜 경험 및 숙달된 기술자 중심의 산업으로 일반인이 양식업에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용역 수립(2019년 4~9월)을 시작으로 '상세전략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2020년 4~12월)을 통한 결과를 활용해, 단계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내수면 갑

각류 연구시설(완주, 2020~2022년, 62억) 구축으로 새로운 양식품종개발 및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종 보존 및 고부가가치 갑각류 우수 종자 생산 시험연구를 통한 매뉴얼을 데이터화 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내수면 갑각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양식 실증연구단지(임실, 2021~2023년, 74억) 구축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 흰다리새우에 대한 실내 양식 표준공정 확립 및 기술개발로 민간 보급을 통한 대중화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상기 첨단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 기존 성장 정체에 어려움을 겪어온 내수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양식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특화품종(흰다리새우, 얼룩새우)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스마트 순환 여과 시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 양식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민물고기연구소는 내수면 창업 비즈니스 센터 건립(김제, 2024~2027년, 250억)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교육·실습·창업지원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전북형 첨단양식 기술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형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으로 내수면 양식산업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스마트 양식 연구시설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표준 양식 기술개발, 어업인 창업 교육 확산 등 양식산업과 지원을 통해 도내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 기반 마련 노력"

민주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 등과 정책 세미나 개최

체육 활동 공간 점검 영역 제도화 등 관련 안건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6일 임오경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임오경 의원, 임오경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 김 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시설안전실장의 지정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 운동장 바닥의 성능점검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영역과 함께 사각지대인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 영역 제도화, 체육 활동 공간에 대한 표준제도 및 표준화 기반 조성 등 체육시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과 관련한 안건이 논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건축물과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집중되고 실제 운동이 이루어지는 구기시설과 경기장 바닥 등은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체육시설은 체육인 모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의 논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